

# “감성팔이 NO”... ‘그날, 바다’ 또 터진 다큐 신드롬



다시 돌아온 다큐 신드롬이다. 다룬 영화 '그날, 바다'(김지영 감독) 세월호 침몰 원인을 과학적으로 '독'가 정치 시사 다큐멘터리영화

사상 최고 오프닝 성적을 거두며 극장가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그날, 바다'는 17일까지 23만5456명을 누적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주년이 되는 날이었던 지난 16일 20만 명을 돌파, 관객들의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놀라운 흥행력을 보이고 있다. 정치 시사 다큐멘터리영화 사상 최고 오프닝을 기록한 '그날, 바다'는 곧 '공범자들'(26만 명) 기록도 넘어설 전망이다.

'그날, 바다'의 관객객 평점은 9.88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리뷰가 늘어날수록 점수가 떨어지는 것과 달리 '그날, 바다'는 상영을 거듭할수록 점수가 점점 상승하는 추세라 최종 성적에 대한 영화계의 시선 역시 비상하다.

관객들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한다" "신과도 감성팔이 아니다" "지겹지 않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라고 권하고 싶은 영화" "보는 내내 사람들의 탄식으로 가슴 찡다" "아이들과 함께 보려 했다. 오늘 한 가장 의미 깊은 일" "나는 정말 모르는 것이 많았구나... 진상 규명이 되는 날까지 잊지 말자는 감상평을 남겼다.

## 세월호 침몰 과학적 다뤄...최고 오프닝 성적 상영 거듭할수록 관객객 평점 점점 상승 추세

관객뿐 아니라 국회의원·아나운서·배우·가수 등 각계각층 인사들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찬사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제명 성남시장은 허두운 진실의 단편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장 진해철 국회의원은 세월호의 진실을 찾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그날의 다짐을 오랫동안 함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조승래 국회의원은 "그날, 바다'만이 알고 있던 진실이 이제 유가족과 전 국민에게 드러난다. 진실을 위해 함께해 달라"고 독려했다.

특히 '그날, 바다'의 노גע런티 내레이션을 맡으며 초반 주목도를 높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정우성은 인스타그램에 셀프 영상까지 남기며 '그날, 바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했다. 정우성은 "내가 내레이션으로 참여한 '그날, 바다'는 참사 이후 4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추적하는 다큐멘터리영화다. 더 많은 분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리는 마음으로 함께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가수 이승환은 '그날, 바다'의 엔딩곡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곡 '기쁘히 있으라'가 사용됐음을 밝히며 '세월호 4주기에 함께 하지 못하는 미안함을 이 노래로 대신해 보내다'라고 애도의 마음을 내비쳤다. 가수 스윗소로우 인호진은 영화 해시태그와 함께 티켓 인증 사진 및 노란색 리본 사진을 게재해 추모에 동참했다.

흥행과 관심의 이유에 대해 김지영 감독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이성적으로 세월호의 공금증들을 퍼즐 조각 맞추듯이 풀어 썼다"는 평을 보였다. '사람들에게 과학적이면서도 제대로 다가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고 해도 마음을 열고 찾아가야 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그날, 바다'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항로를 기록한 AIS를 추적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침몰 원인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과 증거로

접근했다. 인천항 출항부터 침몰에 이르기까지 세월호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팩트를 기반으로 재현해 세월호 침몰 원인을 분석한 것.

또 정부가 세월호 침몰을 단순 사고로 발표할 때 핵심 물증으로 제시한 'AIS 항적도' 분석에 집중하며 침몰 원인을 살펴보는 한편, 각종 기록 자료를 비롯해 물리학 박사 등을 포함한 국제 전문가들의 자문하에 사고 시뮬레이션 장면을 재현했다.

방송인 김여준은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담았다. 다만 답을 내리는 건 민간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후는 국가기관이 할 일이다'면서 "체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나오면 그때 이 영화가 타임캡슐처럼 다시 사용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다. CNN·BBC 등 유력 외신 언론들도 '그날, 바다'를 관련한 뒤 공금증을 쏟아 냈다는 후문. 단순한 영화, 다큐멘터리가 아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보고 영상'으로 '그날, 바다'는 그 목적에 진정성을 갖고, 그 진실을 관객들은 외면하지 않았다.

## 월화극 1위 '우만기', 10%대 정체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만난 기적'이 시청자들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11%의 벽을 못 넘고 있다.

17일 방송된 KBS 2TV '우리가 만난 기적' 6회는 10.5%(닐스코리야 제공, 전국 기준)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16일 방송된 5회에서 기록한 최고 시청률 11.9%보다 1%p 하락한 수치다.

'우리가 만난 기적'은 첫 방송부터 전작인 '라디오 로맨스'가 기록한 최고 시청률인 5.8%를 넘는 8.2%를 기록하며 등장했다.

육체인대리는 독특한 소재와 송현철A와 송현철B를 오가는 김명민의 소름돋는 연기로 인소문을 타며 3회만에 11.2%로 시청률 두자릿수에 진입했고 이후로도 계속 10%대를 유지하며 월화극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가 만난 기적'은 주중 방송되는 미니시리즈 중 유일하게 두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는 드라마로 더욱 주목받는다.

'우리가 만난 기적'의 성과가 결

이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신들이 송현철B를 원래 가족 결로 돌려보내기 위해 선배진과 그가 일하는 마트 대표 금성무(조성 리)를 엮어가는 과정은 다소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선배진이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거침없이 직진하는 금성무의 모습이 공감을 사기 어려운 것.

이같은 문제는 시청률에도 반영되어 초반 시청률 상승세가 주춤한 11%의 벽 안에서 정체중이다. 가장 잘 나가는 드라마가 11%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 참담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기적'은 지난 6회에서 송현철B의 영혼을 담고 있는 송현철A가 송현철A의 과거를 기억하는 모습을 중간중간 보여주며 더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까지 보여준 전개 속도로는 새로운 시청자를 유입은 커녕 기존 시청자를 붙들고 두는 것도 어렵다. 믿을 건 백미경 작가의 필력이 다. 백미경 작가는 전작 '뽕이 있는 그녀'에서도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이야기로 2%대에서 시작한 시청률을 12%로 끝낸 바 있다.

전작들보다 미워 본 백미경 작가는 끝까지 갈 방향을 정해두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스타일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시청률 정체에도 '우리가 만난 기적'은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만든다. 18회 방송분 중 약 1/3만 지나왔다. 앞으로 '우리가 만난 기적'이 보여줄 전개와 그에 따른 시청률에 귀추가 주목된다.

## '데뷔 20주년' 김범수, 신효범 '난 널 사랑해' 리메이크



내년 데뷔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음악 브랜드 'MAKE 20(메이크 트윈티)'를 론칭하는 가수 김범수가 오는 26일 프로젝트의 힘찬 포문을 연다.

김범수는 지난 18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MAKE 20'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싱글 re.MAKE20#1의

재킷 이미지를 첫 공개하며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공개된 이미지 속에는 클래식한 느낌의 나무 액자 속 'LOVE YOU' 문구가 새겨진 붉은색 하트 그림과 함께 프로젝트의 첫 시작은 리메이크가 될 것이며, 첫 번째 싱글은 '난 널 사랑해'임을 암시하는 캘리그래피 문구가 새겨져 있어 시선을 사로잡았다.

과거의 음악 재탄생(re.MAKE), 새롭게 선보이는 음악(new.MAKE) 그리고 클래식 레전드 음악(we.MAKE)까지 세 가지 키워드로 진행되는 'MAKE 20'의 포문을 열 '난 널 사랑해'는 지난 1998년 발매된 가수 신효범의 난 널 사랑해'를 김범수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곡

이다. 이전 세대에게는 향수를, 현재 세대에게는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선사할 예정이라 더욱 기대가 모아진다.

첫 번째 싱글 '난 널 사랑해'를 시작으로 총 20개의 신곡을 순차적으로 발매하는 'MAKE 20' 프로젝트는 단순히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앨범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닌 과거로 회보하지 않고 김범수가 대중에게 새롭게 제시하는 새로운 음악 플랫폼으로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김범수의 20주년 장기 프로젝트 'MAKE 20'의 포문을 열 re.MAKE20#1 '난 널 사랑해'는 오는 26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살인자의 기억법', 해외 영화제 2곳서 수상 '쾌거'

작년 개봉해 스릴러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흥행에 성공한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이 프랑스에서 열린 제 10회 본 스릴러 국제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벨기에에서 열린 제 36회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스릴러상을 수상했다.

앞잡하이머에 걸린 은퇴한 연쇄 살인범이 새로운 살인범의 등장으로 잊혀졌던 살인승관이 되살아나며 벌어지는 범죄 스릴러 '살인자

의 기억법'이 지난 4월 4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린 제 10회 본 스릴러 국제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Jury Prize)을,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벨기에에서 열린 제 36회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스릴러상(Thriller Prize)을 연이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프랑스 본(Beaune)에서 열리는 본 스릴러 국제 영화제는 유럽 내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장르 영화제로 올해 약 50여 편의 영화를 상영했으며, '살인자의 기억법'은 총 8편이 상영되는 경쟁부문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살인자의 기억법'은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판타스포르트 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로 꼽히는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스릴러 경쟁 부문에서도 당당히 스릴러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 오늘의 운세 2018년 4월 20일 금요일 (음력 3월 5일)



▶**띠** 다른 사람 믿고 따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 후회할 일 있겠다. 2, 3, 9월생은 가족과 의견 차이로 불화가 염려되니 성질대로 대하지 말라.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면 세상은 참 재미있는 일도 많다.



▶**띠** 3, 4, 8월생 말이 많으면 실연해 다 된 밤에 때 떨어뜨릴 수 있으니 가족과 만남에서 언어에 신경 쓰라. 개, 닭띠에게 관심과 애정을 주라. 미혼자는 서쪽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 좋겠다. 경기는 침체해도 유동, 운수, 창고, 보험업 종사자 금전 문제는 풀린다.



▶**띠** 신의를 지키고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라. 당신의 답답한 마음을 알아줄 자가 있다. 가족과 함께해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으면 가족에도 두터워진다. 기, 자, 초 성씨는 범, 범, 원숭이 띠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다. 귀인이다.



▶**띠** 기, 오, 초 성씨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살라.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문제가 있다면 남에게 부탁하지 말고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 거지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실토하는 것이 좋다. 1, 2, 3월생 검은색 옷은 주워둬 입지 말라.



▶**띠** 가까운 자와 아주 멀어진 운이다. 지금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사업에는 끈기가 필요하다. 현재 짜증난다 해서 부리치면 갈 길 먼데 길 잃는 격이다. 1, 4, 7, 12월생은 쥐, 토끼, 말띠와 동업하면 길하다.



▶**띠**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 성질대로 하다 이것저것 다 놓치는 격이니 흔들리는 마음을 슬기롭게 다스리는 것이 좋겠다. 7, 9, 10월생 투기는 삼가라. 적게 먹고 내놓는 격이니 욕심은 금물이다. 가까이 있는 기, 오, 초 성씨 충고를 명심하라.



▶**띠**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최고다. 이제 마음껏 뛰어도 힘들지 않으니 더욱 지혜를 모아 내일을 설계하라. 기, 기, 초 성씨는 직업 변동은 생각하지 말라. 오, 초, 초 성씨는 분발하는 만큼 소득이 있겠다. 2, 9, 10월생이 힘이 돼준다.



▶**띠** 기, 기, 초 성씨 생각과 행동을 달리하다 가정 불화를 빚을 염려된다. 이제 삶을 설계해 마음속 복잡한 것을 한꺼번에 버리면 찬란한 태양 빛이 찾아온다. 뜻을 이루는 데는 다소 더디나 시간이 흐를수록 성과를 보게 된다. 초, 양, 닭띠와 협력을 잘 하라.



▶**띠** 기, 오, 초, 초 성씨 내 운명은 애정 고민만 할 때가 아니다. 함께 뛰어 조금이라도 벌어야 할 때다. 남에게만 의존하다 지금보다 더 힘들게 생활한다. 결혼한 자는 부부 맞벌이는 운명이니 협력해 한 해를 설계하면 더욱 길하다.



▶**띠** 오랜만에 가족과 만나 즐겁겠으나 각기 계획이 달라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고민만 한다. 5, 8, 9월생 냉정한 판단으로 내일을 설계하라.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관대함을 키워라. 애정은 둘이 있어도 혼자 사는 격이다. 북쪽과 서쪽이 길하다.



▶**띠** 기, 기, 초 성씨 경쟁명동하다 구설에 올라 헤어지기 힘들 듯, 힘이 없으면 동업하라. 쥐, 토끼, 닭띠가 도움 수 있다. 북쪽과 동쪽에 있는 사람이면 더욱 좋다. 현재는 사랑보다 돈으로 고통받으니 구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길하겠다.



▶**띠** 손에 든 것이 없다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매사가 힘들다. 범, 원숭이띠에게 좀 더 신경 쓰면 평안해진다. 용기를 잃지 말고 지혜를 모아 전진하라. 외출은 생각하지도 말라. 용운이 도사리니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